

진주성과 축석루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경남 진주의 문화유산 답시는 대개 남강을 올라가 삼아 우뚝 서 있는 진주성에서 시작된다. 임진왜란 3대 승첩지 중 하나인 진주성에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축석루와 김시민 장군 전궁비, 북장대 등이 있고, 성 밖 남강에는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다는 의암이 있다. 어둠이 내려오면 진주성과 축석루는 황홀한 야경을 보여준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부터 남부지방의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말한다. 진주대첩이 벌어졌던 혈전의 현장인 진주성은 임란 이후 경상도 우병영이 위치했고, 해방 이후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이 소재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1979년부터 성 안팎의 민가를 모두 철거, 지금의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 성안에는 축석루, 의기사, 창렬사, 북장대, 서장대 등 진주성 전투를 돌이켜 생각해보л 만한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아픈 역사를 품은 진주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됐다. 축석루는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이 선정한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왜적과 맞섰던 치열한 역사의 현장
17세기 이후에 그려진 ‘진주성도’에 나와 있는 진주성의 정문인 공북문(拱北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가니 잘 꾸며진 잔디공원과 김시민(金時敏·1554~1592) 장군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공북문은 ‘북쪽에 있는 임금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경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고유(告由)하던 자리로 알려졌다.

오랜 세월 진주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아 온 진주성(晉州城·사적 제118호)은 서남쪽에서 동남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따라 높이 5~8m, 길이 1천760m의 성곽을 두르고 있는 자그마한 성이다. 현재 역사공원으로 꾸며진 진주성에서는 임진왜란 때 두 차례의 큰 전투가 있었다. 처음 건립된 시기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이후 고려말 우왕 5년(1379)에 진주목사인 김증광이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석성으로 개축했다. 이어 선조 24년(1591)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외성을 쌓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해 10월 진주성에서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이 3

천800여 명의 군사로 2만여 명의 왜적을 물리쳤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진주대첩은 왜군이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덟 달 뒤인 1593년 6월 왜군 10만여 명이 다시 진주성으로 쳐들어왔다. 민·관·군 7만여 명이 왜구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장렬하게 순절했고 진주성은 함락됐다. 왜군은 승전을 자축하기 위해 축석루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 와중에 의기 논개는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 장일영 문화관광해설사는 “진주성은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이 벌어졌던 격전지로 역사 현장학습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라며 “진주를 일컬어 약무진주 무무호남(若無晉州 是無湖南)이라고 말하듯 진주는 예로



1 진주성도(晉州城圖)
2 장수를 뜻하는 ‘帥’(수) 자가 적혀 있는 깃발
3 왜군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민·관·군의 넋을 기리는 임진대첩계사순의단
4 김시민 장군 전공비와 축석정충단비



축석루는 진주성을 휘감아 도는 남강과 어우러져 천하의 전경을 연출한다. 전시에는 지휘소로 쓰였고 평시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2000년 1월 1일 제막한 김시민 장군 동상은 높이 7m로 진주성 수호상이다. 시호는 충무(忠武)로 이순신 장군과 같다. 동상 앞 비석에는 “1578년 무과에 급제, 훈련원·군기시 판관을 거쳐 1591년 진주 판관이 되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병으로 죽자 그 직을 대신하여 민심을 다독이고 성과 못을 수축하는 한편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체제를 갖추어 사천·고성·진해·지례·금산 등지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목사로 승진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5일 침공한 적의 2만 대군을 불과 3천800여 병력으로 6일간의 공방전 끝에 크게 무찔러 이기니 곧 진주대첩이다. 그러나 이마에 적탄을 맞았다. 이어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상에서 나랏일을 근심하며 눈물짓다가 39세를 일기로 이곳 진주성에서 순절하였다. 슬프다! 장군의 천수가 꺾이지 않았던들 이듬해 6월 진주가 적의 손에 떨어졌을까…”라고 적혀 있다. 김시민 장군 동상을 둘러본 뒤 성곽을 따라 왼쪽으로 올라가면 김시민 장군 전공비(경남 유형문화재 제1호)와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김천일, 최경희, 황진 등의 충정과 전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세워진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檀碑·경남 유형문화재 제2호)를 만난다. 옆에는 퍼버린내 나는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7만 민·관·군의 넋을 기리는 임진대첩계사순의단이 세워져 있다.

“그 바위 홀로 서 있고 그 여인 우뚝 서 있네
이 바위 아녀들 그 여인 어찌 죽을 곳을 찾았겠으며
이 여인 아녀들 그 바위 어찌 의롭다는 소리 들었으리요
남강의 높은 바위 꽃다운 그 이름 만고에 전하리”



임진대첩계사순의단에서 남강 쪽으로 내려가면 ‘영남 제일의 명승’으로 꼽히는 축석루(矗石樓·경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가 서 있다. 고려 고종 28년(1241)에 창건된 이래 수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듭한 축석루는 ‘강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는 의미로 ‘축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전시에는 장졸을 지휘하던 지휘소로 쓰였고 평시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장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의 누대로 과거를 치르던 고사장으로도 사용됐다. 임진왜란 때 불탄 축석루는 1948년 국보 제276호로 지정됐으나 6.25 한국전쟁 때도 불타는 불운을 겪은 뒤 1960년에 복원됐다. 축석루에 오르면 ‘북에 평양 부벽루가 있다면 남에는 진주 축석루가 있다’는 옛말이 거짓이 아님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 옛날 진주성을 휘감아 도는 남강과 의암, 강너머 드넓은 모래사장, 초록빛 산과 탁 트인 하늘이 어우러져 천하의 절경을 연출했을 것이다. 고려 시대 문인 이인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집으로 손꼽히는 ‘파환집’에서 “진주의 산수(山水)



1 축석루 내 석류나무 붉은 꽃 2, 3 의기사의 논개 영정과 논개의 충절이 새긴 의암 4, 5 규모는 작지만 축석루보다 높은 지역에 있어 서쪽을 감시하고 지휘하기 좋은 서장대





1 진주성을 방어하는 포진지 2 잔디광장에 복원된 우물
3 선조 40년(1607)에 건립된 사액사당인 창렬사. 매년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에 제향을 봉행한다.

가 영남 제일"이라고 말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축석루에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청천 신유한, 매천 황현 등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시판(詩板)이 걸려 있는데 너무 높이 걸려 있어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축석루에서 암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면 논개가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뛰어든 의암(義巖·경남 기념물 제235호)이라는 바위가 반긴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남강 수면 위에 솟아있는 바위 서쪽 면에는 인조 7년(1629) 정대룡이 쓴 '義巖'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논개가 낙화(落花)한 곳이라서 그런지 축석루를 떠받치는 벼랑만큼이나 크고 당당하게 느껴진다. 의암 바로 위에 세워져 있는 의암사 적비에는 '그 바위 홀로 서 있고 그 여인 우뚝 서 있네/ 이 바위 아녀들 그 여인 어찌 죽을 곳을 찾았겠으며/ 이 여인 아녀들 그 바위 어찌 의롭다는 소리 들었으리오/ 남강의 높은 바위 꽃다운 그 이름 만고에 전하리'라는 한시가 새겨져 있다.

축석루 옆에는 의기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의기사(義妓祠·경남 문화재자료 제7호)가 있다. 다산 정약용의 중수기, 매천 황현과 진주 기생 산홍의 시판이 걸려 있다.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미모와 기예가 모두 뛰어난 진주기생 산홍은 내부대신이며 친일 앞잡이인 이지용이 첩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자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오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첩은 비록 천한 기생이라고 하나 스스로 사람 구실을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적의 첩이 되겠습니까?"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의기사 바로 옆 쌍충사적비(雙忠事蹟碑·경남 유형문화재 제3호)는 임



4 진주성 성곽길 5 북장대 바로 옆에 흐트러져 있는 돌무더기들은 슬픈 사랑 이야기인 '옹다리의 전설'을 담고 있다. 6 진주성 북쪽 끝에 자리 잡은 북장대는 성 안팎을 두루 살피며 지휘할 수 있는 망루로 임진왜란 때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7 진주국립박물관 내 임진왜란실

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싸우다 순국한 성주목사 제말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제홍록 장군의 충의를 새긴 비석이다. 쌍충사적비를 지나 성곽을 따라가면 진주성에서 가장 높은 망루인 서장대(西將臺·경남 문화재자료 제6호)가 나온다. 절벽 위에 위치해 서쪽을 감시하고 지휘하기 좋은 지휘소로 남강이 환하게 내려다보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회룡루(回龍樓)로 나오는데 규모는 작았으나 축석루와 같이 다락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서장대는 1934년 한 독지가에 의해 중간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목조기와 집이다. 서장대 아래 위치한 호국사(護國寺)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근거지였으며, 창렬사(彰烈祠·경남 문화재자료 제5호)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충민사에 모셔져 있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신위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38명의 신위를 모신 사액(賜額) 사당이다. 사당 내에는 임금이 지어 내린 제문의 비각이 있다.

창렬사를 나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천자총통·지자총통·현자총통이 설치된 포루를 만난다. 진주성 내성에는 3곳, 외성에는 9곳 등 총 12좌가 있었으나, 상징적으로 한 곳만 복원했다. 팽나무와 느릅나무가 하나로 붙어있는 연리나무를 지나면 북쪽 지휘소인 북장대(北將臺·경남 문화재자료 제4호)에 닿는다. 진주성 북쪽 끝 제일 높은 곳에 있어 성내는 물론 외성의 군사까지 지휘할 수 있었다. 진남루(鎭南樓)라고도 부르는 북장대에 오르면 진주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북장대에서 성벽을 따라가면 공북문이고, 성 중심부로 내려오면 조선 시대 경상우도 병마절도영의 문루인 영남포정사(경남 문화재자료 제3호)가 눈에 띈다. 문루 앞에는 '수령 이하의 사람은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오라'는 표석인 하마비가 있다.

진주성 내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인 진주국립박물관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임진왜란실은 전쟁의 발발, 일본군 전략, 조선의 대응(의병과 수군의 활약), 명군의 참전, 정유재란과 종전 등의 주제로 나누어 전쟁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김시민선무공신교서(보물 제1476호), 천자총통(보물 제647호) 등 다양한 유물 관람은 물론 진주성의 역사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진주성의 또 다른 매력은 야경이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진주성 건너편 중앙광장에 서면 진주성벽과 축석루는 화사한 불빛을 받아 황홀한 경치를 보여준다. 바람에 일렁이는 남강 물결 너머 축석루의 처마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조명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성안으로 들어가 은은한 불빛을 따라 느릿느릿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왜적과 맞섰던 치열한 역사의 현장, 천지사방이 적요했고 남강의 물결은 더없이 깊게 느껴졌다. Y



7